

노 동 동 향

경제일반

홍서연*

◆ 한국은행 향후 경기전망

- 2002년에는 GDP성장률이 5.7%로 크게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내수호조에 수출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확대되어 GDP성장률이 2002년 2/4분기 중 5%대 후반, 하반기에는 6%대 초반으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은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2/4분기부터는 회복속도가 빨라져 연간 8% 정도 늘어날 전망

◆ 생산과 설비투자 다소 감소

- 2002년 2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설날의 2월 위치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과 설비투자는 다소 감소(표 1 참조)
 - 산업생산은 섬유제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부가가치 기준)은 2002년 2월 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제품출하는 내수출하(5.5%)와 수출출하(0.9%)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 재고는 의복,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음향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9.4% 감소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5로 전년동월대비 2.6포인트 상승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2년 2월에 99.2(1995=100 기준)를 기록하여 전월과 같은 수준(표 2 참조)
 -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2002년 1월에 이어 상승세 유지
 -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재고순환지표, 수출용원자재수입액,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0.6% 상승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1995=100)

	2000	2001						2002	
	12월	1월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생 산	4.7	0.3	8.7	5.1	-1.4	5.0	3.3	10.0	-2.6
제 조 업	4.5	-0.1	8.7	4.7	-1.6	4.8	2.9	9.8	-3.0
서 비 스 업	3.2	4.0	6.0	6.5	5.7	7.8	8.3	9.8	6.7
출 하	3.9	-1.9	4.4	4.6	-0.8	7.1	2.7	13.5	3.4
재 고	16.2	16.3	15.1	11.5	4.9	1.9	-1.7	-5.1	-9.4
평균 가동률	73.9	73.9	73.9	73.3	72.4	73.0	71.8	76.6	76.5

주: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2월 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02년 2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2. 3.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전월대비 %, 1995=100)

	2000	2001							2002	
	12월	1월	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2월p
선행종합지수	-0.8	-0.6	0.5	0.1	1.5	0.6	1.1	-0.2	1.7	0.6
동행종합지수	-0.2	-0.6	-0.1	0.1	0.7	0.6	0.5	-0.4	1.4	0.3
후행종합지수	-0.2	-0.3	-0.1	0.3	0.4	-0.2	0.0	-0.1	0.3	0.3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6	99.7	99.3	98.0	98.4	98.7	98.9	98.2	99.2	99.2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2002년 2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2. 3.

◆ 물가상승폭은 둔화추세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1년 5월을 정점으로 둔화추세로 반전하였고 1월부터는 2% 대로 낮아지고 2002년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3%를 기록(표 3 참조)
 - 신학기 납입금과 학원비 등이 오른 교육비와 주거비 부문 등의 상승으로 전월대 비로는 0.6%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
- 2002년 3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보합(0.0%)이나, 전월대비로는 0.6% 상승(표 3 참조)
 - 전월대비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가격의 상승과 서비스물가의 상승세에 기인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2001								2002		
	1월	2월	3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6	4.0	4.7	3.3	3.4	3.4	3.2	2.6	2.6	2.3
생활물가상승률	4.9	4.9	5.2	6.0	3.4	3.6	3.7	3.0	2.4	2.4	2.0
생산자물가상승률	2.3	2.4	2.8	2.0	1.2	0.6	0.1	-0.7	-0.6	-0.2	0.0

자료: 한국은행, 『2002년 3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2. 4.

통계청, 『2002년 3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2. 3.

◆ 수출입 감소세 둔화

- 수출은 2001년 3월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호전된 실적으로 감소율이 한 자리 수로 낮아짐(표 4 참조).
 - 2002년 3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3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수입은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감소율이 두 자리에서 한 자리수로 회복
 - 2002년 3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2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6% 감소
- 한편 경상수지는 2002년 2월 4.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는 0.3억달러 증가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백만달러, %)

	2001						2002		
	2월	3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 상 수 지	414.1	1603.3	735.8	300.4	738.1	15.3	325.2	435.1	-
수 출 액 ¹⁾	13,354	14,125	12,447	12,086	12,349	11,914	11,412	11,105	13,392
	(5.3)	(-2.1)	(-17.7)	(-20.7)	(-17.6)	(-20.4)	(-9.8)	(-16.8)	(-5.2)
수 입 액 ¹⁾	12,732	12,952	11,710	11,507	11,533	11,302	11,323	10,469	11,962
	(5.9)	(-8.9)	(-11.9)	(-18.4)	(-18.6)	(-14.2)	(-8.9)	(-17.8)	(-7.6)

주: 1) 통관기준.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자원부, 『2002년 3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2002. 4.

한국은행, 『2002년 2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2002. 3.

노동동향

고용

홍서연*

◆ 실업률 3.4%로 하락

- 2002년 3월 중 실업자수는 769천명(실업률 3.4%)을 기록하여 2002년 2월의 802천명보다 33천명 감소(표 1 참조)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795천명) 증가한 21,523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도 424천명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 22,292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한 14,441천명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1			2002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1,267(0.0)	21,265(0.0)	21,763(0.3)	21,845(2.7)	21,901(3.0)	22,292(2.4)
참가율	58.5	58.5	59.8	59.6	59.7	60.7
취업자	20,286(0.8)	20,196(0.2)	20,728(0.3)	21,025(3.6)	21,099(4.5)	21,523(3.8)
실업자	982	1,069	1,035	819	802	769
실업률	4.6	5.0	4.8	3.7	3.7	3.4
비경제활동인구	15,066(2.5)	15,092(2.6)	14,619(2.1)	14,832(-1.6)	14,806(-1.9)	14,441(-1.2)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2년 3월 고용동향』, 2002. 4.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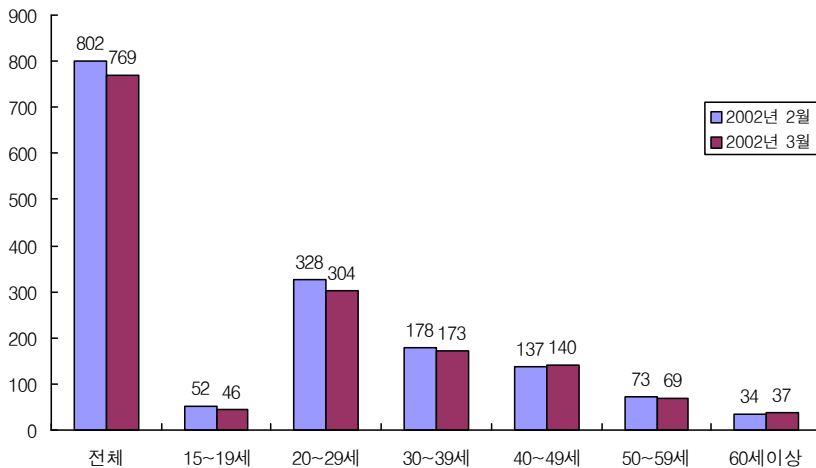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33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424천명 증가
 - 2001년 3월에는 실업자가 전월대비 34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532천명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7%로 1월의 59.6%에 비해 1.1%포인트 증가

◆ 실업자 : 전월대비 실업자 감소는 20대에 집중

- 2002년 3월 실업자의 전월대비 감소는 20대에서 24천명, 10대에서 6천명(그림 1 참조)
 - 그러나 40~49세 연령층 실업자와(3천명), 6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자는 (3천명) 증가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2002년 3월 고용동향』, 2002. 4.

◆ 구직기간 3~6개월 실업자 감소

- 실업자는 전월에 비해 33천명 감소, 3개월 미만의 구직실업자는 2천명 증가하였으나, 3~6개월 구직실업자가 33천명 감소하였음(표 2 참조).

<표 2> 구직기간별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2002. 2.	2002. 3.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 체	802	769	-33
3개월 미만	479	481	2
3~6개월	226	196	-33
6~12개월	81	79	-2
12개월 이상	14	13	-1

자료 : 통계청, 『2002년 3월 고용동향』, 2002. 4.

◆ 전월대비 취업자 증가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에 치중

○ 전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2002년 2월에 비해 433천명(2.0%) 증가 (표 3 참조)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 특히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건설업에서 취업증가가 두드러짐.
- 그러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44천명 감소하였고,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에서는 24천명 감소

<표 3>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2002. 2.	2002. 3.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 산 업	21,099	21,523	433
농림어업	1,668	1,974	306
광업	20	21	1
제조업	4,148	4,169	21
건설업	1,550	1,656	1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38	5,894	-4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647	5,703	56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28	2,104	-24

자료 : 통계청, 『2002년 3월 고용동향』, 2002. 4.

○ 노동력 이동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서비스부문에서 신규취업이 증가(표 4 참조)

- 3월 중 신규취업자는 1202천명으로 이 중 약 19.5%인 234천명은 실업에서 취업한 반면, 약 80.5%인 968천명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
- 신규취업은 농림어업(25.4%, 305천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3%, 280천명),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22.1%, 266천명)에 치중
- 특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동

<표 4> 신규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월 → 3월)

(단위: 천명, %)

	전 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 창고·금융
전 체	1202(100.0)	305(25.4)	141(11.7)	170(14.1)	280(23.3)	266(22.1)	40(3.3)
실 업 자→취업자	234(100.0)	3(1.3)	40(17.1)	51(21.8)	61(26.1)	65(27.8)	14(6.0)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968(100.0)	302(31.2)	101(10.4)	119(12.3)	219(22.6)	201(20.8)	26(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2~3월 원자료.

◆ 2001년 1/4분기와 비교한 2002년 1/4분기 취업자는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

- 2001년 1/4분기와 2002년 1/4분기의 업종별 종사상 지위의 취업자 증감을 보면 전체적으로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는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에서 326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168천명, 건설업에서 130천명 증가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일용직 취업자가 254천명, 임시직 취업자가 220천명 증가하였으며, 상용직 취업자는 131천명 증가
 -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326천명)는 167천명은 상용직, 134천명은 임시직에서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증가 130천명 중 일용직에서 108천명이 증가

<표 5> 2002년 1/4분기의 업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전 체	상 용	임 시	일 용
전 산 업	606	131	220	254
농림어업	15	-2	-1	17
제조업	-22	-16	-14	8
건설업	130	15	7	1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8	-1	81	88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362	167	134	25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11	-32	13	8

주: 2001년 1/4분기 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	동	동	향
---	---	---	---

임금 및 근로시간

이시균*

◆ 2001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121.2만원

- 2001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21.2만원으로 2000년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113.1만원에 비해 7.2% 상승(표 1 참조)
 - 2001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20.2만원으로 나타나 「매월노동통계조사」의 2001년 8월 임금총액 170.0만원과 큰 차이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를 통해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반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임금대장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범위와 조사방식이 서로 달라 통계수치상의 커다란 차이가 발생
 -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제시한 2001년 8월 임금총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 미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산업별 평균임금

- 2001년 월평균 임금의 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100만원 미만의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인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표 1>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년 8월	2001년 8월
월평균 임금	1,131	1,212
평균임금 증감률	-	7.2
소비자물가 증감률	2.5	4.7
실질임금 증감률	-	2.4

주: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상하위 1%를 제외하고 추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96.6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보험업의 평균임금은 150만원을 상회
- 제조업(122.6만원), 건설업(123.7만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128.7만원)의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
- 건설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서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도소매·숙박업에서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임.
 - 2001년 평균임금상승률은 건설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2%, 9.2%로 상승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소매 및 숙박업은 6.6%로 가장 낮았음.

<표 2> 산업별 평균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년 8월	2001년 8월
전 산업	1,131	1,212 (7.2)
제조업	1,135	1,226 (8.0)
전기·가스 및 수도업	1,543	1,684 (9.2)
건설업	1,113	1,237 (11.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06	966 (6.6)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50	1,446 (7.1)
금융 및 보험업	1,417	1,543 (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216	1,287 (5.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 직종별 평균임금

- 2001년 직종별 평균임금 동향을 보면, 숙련수준이 높은 고위관리직과 전문가는 170만원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수준을 보인 반면, 숙련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 종사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숙련직의 평균임금은 70만원 수준으로 고위관리직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으며, 고위관리직과 전문직과의 임금격차도 65만원으로 고숙련 직종 내에서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직종별 평균임금상승률을 살펴보면 2000년 8월에 비해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 직종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고숙련 직종은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단순노무직 역시 3%대의 낮은 상승률 기록
 -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와 사무직원의 평균임금상승률이 각각 12.6%, 10.5% 나타나 두 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고숙련 직종인 고위관리직(3.9%), 전문가(-1.7%), 기술공 및 준전문가(3.8%)은 낮은 상승률을 기록

<표 3> 직종별 평균임금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년 8월	2001년 8월
전 직 종	1,131	1,212 (7.2)
고위관리직	2,339	2,431 (3.9)
전문가	1,808	1,777 (-1.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67	1,523 (3.8)
사무직원	1,231	1,359 (10.5)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818	922 (12.6)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	713	775 (8.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74	1,144 (6.5)
장치, 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1,169	1,263 (8.1)
단순노무직 종사자	719	741 (3.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 2001년 근속기간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평균임금은 165.6만원으로 3개월 미만(77.9만원)의 2배, 3~6개월(89.4만원)의 1.9배, 6~12개월(97.5만원)의 1.7배에 해당
 -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평균임금이 100만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3년 이상 근속인 경우에 전체 평균임금을 크게 상회
- 3개월 미만 근로기간에 속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 상승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평균임금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3년 근속한 경우가 9.7%, 1~2년 근속한 경우 9.5% 순으로 나타나 근속기간별이 길어질수록 임금상승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근속기간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2000년 8월	2001년 8월
전 체	1,131	1,212 (7.2)
3개월 미만	706	779 (10.3)
3~6개월	837	894 (6.8)
6~12개월	914	975 (6.1)
1~2년	983	1,076 (9.5)
2~3년	1,057	1,160 (9.7)
3년 이상	1,475	1,656 (12.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 성별 평균임금

- 2001년 성별 평균임금동향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2001년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6.8만원으로 남성근로자의 144.6만원의 60% 수준
 -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때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000년에

167.4, 2001년에 166.5로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축소

<표 5> 성별 평균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여자 임금=100)

	2000년 8월		2001년 8월	
		격 차		격 차
남 자	1,348 (-)	167.4	1,446 (7.3)	166.5
여 자	805 (-)	100.0	868 (7.9)	100.0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 학력별 평균임금

- 2001년 학력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는 중졸 이하 학력소지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에 비해서도 약 40% 정도 임금수준이 높았음(표 6 참조).
 - 대졸 이상 학력자의 평균임금은 160.5만원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 83.5만원, 고졸 114.8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임금수준을 보임.
 - 고졸의 평균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중졸의 경우 2001년에 72.8로 나타나 2000년의 73.6에 비해 학력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된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2000년 141.4에서 2001년 139.9로 나타나 다소 축소

<표 6> 학력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고졸 임금=100)

	2000년 8월		2001년 8월	
		격 차		격 차
중졸 이하	787 (-)	73.6	835 (6.1)	72.8
고졸	1,070 (-)	100.0	1,148 (7.3)	100.0
대졸 이상	1,513 (-)	141.4	1,605 (6.1)	139.9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여전

-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임시직의 평균임금은 상용직의 56.4%, 일용직은 44.8%에 해당하여 종사상 지위간 임금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상용직의 평균임금은 159.9만원으로 임시직 90.1만원, 일용직 71.6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상용직 평균임금을 100이라 할 때 2000년에 임시직은 56.9, 일용직은 44.8, 2001년에 임시직 56.4, 일용직 44.8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종사상 지위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월, %, 상용직 임금=100)

	2000년 8월		2001년 8월	
		격 차		격 차
상 용	1,496 (-)	100.0	1,599 (6.9)	100.0
임 시	851 (-)	56.9	901 (5.9)	56.4
일 용	670 (-)	44.8	716 (6.9)	44.8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 2001. 8)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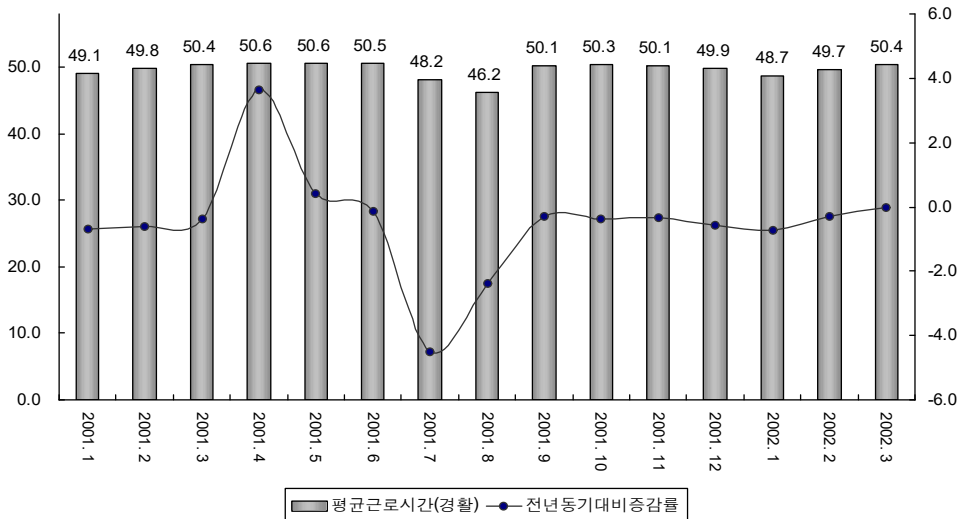
◆ 2001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50.4시간 기록

- 2002년 3월 중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년과 동일한 50.4시간 기록
 -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0.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2월에 비해서는 0.7시간 증가
 -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9월 이후 50시간 전후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

◆ 건설업, 주당 평균근로시간 증가세 지속

- 2002년 3월 중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3.5% 감소(표 8 참조)
 - 건설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산업은 전년동기와 거의 동일한 근로시간을 유지

(그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추이



-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5.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52.3시간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의 평균근로시간은 각각 46.2시간, 47.6시간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수준

<표 8> 산업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동향

(단위: 시간/주, %)

	2001. 8	2001. 9	2001. 10	2001. 11	2001. 12	2002. 1	2002. 2	2002. 3
전 체	46.2 (-2.3)	50.1 (-0.4)	50.3 (-0.4)	50.1 (-0.4)	49.9 (-0.6)	48.7 (-0.8)	49.7 (-0.2)	50.4 (0.0)
제조업	47.5 (-2.9)	50.7 (-0.8)	50.8 (-1.2)	50.7 (-0.6)	50.4 (-1.2)	50.4 (-1.0)	50.5 (-0.6)	50.9 (-0.6)
전기·가스 및 수도업	42.1 (-7.5)	47.9 (4.6)	47.5 (-1.0)	47.1 (-2.3)	47.5 (-0.2)	47.5 (0.4)	47.4 (2.2)	46.2 (-3.5)
건설업	47.0 (0.0)	50.2 (2.4)	50.1 (1.4)	49.9 (1.0)	48.7 (1.7)	46.2 (3.4)	46.6 (3.3)	49.1 (2.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9.6 (-2.4)	52.1 (-0.2)	52.2 (-0.2)	51.9 (-0.4)	51.9 (-0.8)	51.8 (-1.0)	52.4 (0.4)	52.3 (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2.3 (-0.8)	55.2 (0.5)	55.3 (0.7)	54.8 (-0.5)	54.7 (-0.4)	54.9 (-0.2)	55.1 (0.9)	55.3 (0.5)
금융 및 보험업	42.4 (-2.5)	47.1 (-0.4)	47.5 (0.2)	47.8 (1.1)	48.4 (1.3)	48.1 (1.5)	47.9 (0.6)	47.6 (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42.0 (-2.3)	47.8 (-0.8)	48.3 (-0.4)	48.0 (-0.8)	48.0 (-0.6)	45.0 (-0.9)	47.4 (-1.5)	48.6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동향

노사관계

이시균, 진숙경*

I.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증가

- 2002년 3월 3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참가자수·근로손실일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1건에 비해 증가
 - 특히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인수는 각각 17,531명과 212.5천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837명과 92.0천일보다 크게 증가
 - 발생건수와 분규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2001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분규가 많이 발생한데다 한국발전산업노조의 파업(5,609명 참가)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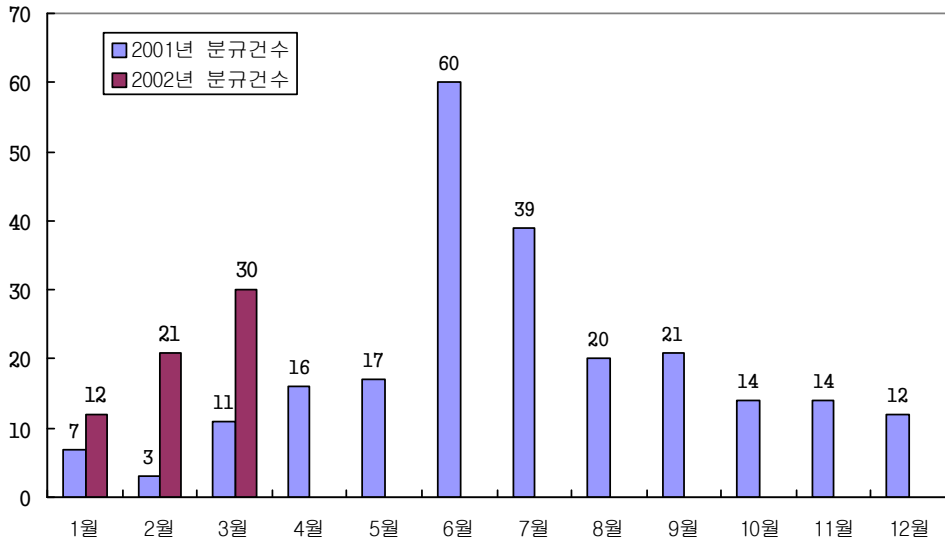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천일)

	2000년 3월 31일	2001년 3월 31일	2002년 3월 31일
노사분규 발생건수	26	21<16>	30<11>
분 규 참 가 자 수	9,788<590>	1,837<4,015>	17,531<732>
근 로 손 실 일 수	98.4	92.7	212.5

주: < >안은 전년 이월분임.
자료: 노동부.

* 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진숙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indorl@kli.re.kr).

(그림 1) 노사분규발생건수 월별 추이(2001, 2002년)



II.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제시

○ 노동부는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원칙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제시

- 노동부는 2002년 임금교섭 기본방향으로 「노사자율 임금교섭 원칙」 견지, 노사 간 대화 활성화와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의 적정배분을 통한 노사의 공동이익 도모를 설정
- 노동부는 임금교섭 관련 핵심 추진과제로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 정착지원, ‘임금-근로조건-근로복지’ 패키지 교섭 유도, 성과주의 임금제도 정착지도, 임금교섭 방식의 합리화, 임금격차 완화 유도 등을 제시
- 경영정보의 공유를 통한 노사간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평화적 임금교섭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노사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적 임금교섭이 되도록 지도할 방침
- 대기업, 고임사업장, 지불여력이 있는 사업장 및 호황업종은 임금인상보다는 근

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개선과 연계해 교섭하도록 권고

- 성과에 따른 보상, 근로의욕 고취,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신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유도
- 또한 각종 수당의 통폐합, 추가 수당신설 자제 등으로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여 노사간 마찰방지 및 임금관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
- 그밖에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고려하여 가급적 국제행사전 임금교섭을 완료하도록 지원할 방침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주 5일제” 논의 주휴일무급화 등에 막혀 주춤

- 주 5일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2년여를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4월 들어 급진전하였으나 ‘주휴일 유·무급’ 및 시행시기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5월초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워짐.
 - 2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던 주 5일제 논의는 2월 25일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노조의 연대파업 돌입으로 주춤하게 되었고, 이후 발전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올해 내 주 5일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사회적으로 법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주 5일 도입이 구체화되고 일부 대기업들이 앞다퉀 올 해 중 주 5일제 도입을 실시할 방침인데다 금융 및 공공부문 노조들이 임금보전을 전제로 주 5일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주 5일제 법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한국노총이 4월 16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주 5일근무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표명한 이래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4자 협상이 17~19일까지, 23일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됨.
 - 4자 협상에서는 주휴일 무·유급문제를 비롯해 시행시기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노사 양측 모두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다른 조항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음.
 -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노사정위는 조정안을 제출하고 5월 4일까지 조정안을 기초

로 한국노총과 경총이 각각 검토기로 해 5월초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둬.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위, 조정안 전문** 고등안 취지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단체에 제시함.

1. 유급 주휴 : 현행유지
2. 연차휴기일수 : 15~25일/3년당 1일씩 추가
3. 휴가사용촉진방안 도입
4. 탄력적 근로시간 : 3~4개월 - 1일 12시간 1주 52시간 한도(참조 - 현행: 1개월, 1일12시간, 주 56시간)
5. 시행시기
 - 금융, 보험, 공공 : 시행 후 3개월 이내
 - 1,0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1년 이내
 - 3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2년 이내
 - 5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3년 이내
 - 2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4년 이내
 - 20인 미만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대책 강구(산업연수생 등)
7. 기타 사항은 전노사정위안에 따름(할증률: 3년간 한시로 새로 적용되는 4시간 분은 25%, 연장근로 상한: 3년간 한시로 16시간으로 연장).
8. 타결시 공동발표문 검토(노사평화선언, 생산성 향상 공동노력 등)

2002. 4. 24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 민주노총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폐지 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노사정위 조정안대로라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도 계절별 업무편차가 심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과 함께 노동강도 강화까지 뒤따르게 될 것이며,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5일제 도입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 주5일제 합의의 최대 난제는 한국노총 내 제조업부문 노조들의 극심한 반발과 경영계 내부의 입장 차이 등이 협상 당사자들이 결단을 내리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인 한국노총 내 제조업부분 노조들은 주 5일근무제가 주휴 무급화 등을 전제로 실시된다면 시급·일급제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 상대적으로 월급제나 연봉제의 사무전문직이나 금융권,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 5일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 노동조건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경영계를 대표하여 경총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4월 23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 임원회의를 열고 ‘주휴무급화, 주 5일제 조기도입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으며,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주 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상반기 중 주 5일제 논의가 재론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5월부터 대기업이나 금융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 민주노총 임원사퇴로 비상체제 전환

-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교섭권을 위임받아 협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의안에 반발하는 조직내부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위원장 직무대행 및 사무총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전원이 사퇴하는 조직내 혼란을 겪고 있음.
 - 민주노총은 4월 8일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발전파업과 관련한 조정협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갖고 임원들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기로 함.
 -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위원장까지 사퇴할 경우 5~7월 임단협과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됨으로써 중앙위원 다수의 입장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퇴만을 확정함.
 - 이날 중앙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냐, 부위원장 선거체제로 돌입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존재해 논란을 겪다가 비대위로 전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성방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성기로 함.
- 민주노총은 4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대위의 임무 및 구성 등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앙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비대위의 역할을 ‘상반기 투쟁 지도·집행 및 4.2 총파업 유

- 보로 인한 제반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는 안과 민영화저지·주5일근무제 쟁취 등을 걸고 즉각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으로 하지는 안을 두고 논란을 벌임.
- 결국 참석 대의원 425명 중 96명만이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안에 찬성해 비대위의 주요 임무는 상반기 투쟁을 조직하고 새 집행부 구성까지의 시기를 책임지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금속연맹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 방안이 중앙집행위의 안으로 제출됐으나 “총파업을 벌일 수 있는 대기업노조와 발전·가스·항공 등 노조를 참여시키자”는 수정안이 나와 논란을 벌이던 중 재적 대의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비대위 구성안건을 다시 중앙위로 넘김.

- 노정협의 내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발로 지도부가 사퇴한 후 민주노총은 비대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는 등 심각한 지도력 부재 상황에 놓여 있음.
 -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4월 29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건을 재논의하여 산별 대표자 및 지역본부 의장들의 동의하에 제출된 금속연맹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5월 6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성기로 함.
 -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주5일제가 합의되어 국회상임위 상정 시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5월 임단협 투쟁에 집중해 나갈 계획
 - 5.1 노동절 집회로 중앙차원으로 힘을 모으고 5월 둘째주까지 조정신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5.19일 총력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갖고 5월 22일을 전후해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돌입할 계획
 - 민주노총은 취약한 중앙 지도력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사무총장 등 선거를 실시하는 등 집행부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노사정 포럼 개최

-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ILO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노사관계의 신뢰회복과 대화체제의 복원’을 주제로 노사정 고위지도자와 정책담당자, 학계전문가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포럼 개최

- 발전노조 파업으로 노정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와중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사정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체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함.
- 이날 참석자들은 현 시기 노동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라는 점을 공감하고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노사정 및 학계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함.
-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여 기업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최고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노사정 포럼을 정례화시키고 노사관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철도·발전노조 등의 파업 후유증 철도노사 쟁점사항 합의

- 민영화에 반대하며 연대파업을 벌였던 철도·발전노조가 징계범위 등을 두고 파업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음. 이들 노조가 2차 연대파업 계획을 밝히고 나서는 가운데 철도노사는 서로간의 양보로 합의를 이끌어냄.
 -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및 징계 확대, 현장탄압 등 공동의 쟁점을 안고 있는 이들 3사 노조는 4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투쟁 계획을 발표
-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징계 최소화’ 등 합의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 4월 9일 노사간담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의견접근을 이루어냈으나 ‘무쟁의 선언 요구’ 등 새로운 요구사항이 제출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지속적 교섭을 통해 4월 29일 합의에 이룸.
 - 철도 노사는 고소·고발자 범위를 중앙집행부로 한정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조합비 가압류 취하, 팀장 등에 대한 노조탈퇴 중지 등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회사측이 ‘무쟁의 선언·현장간부 징계범위 포함’ 등의 요구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쟁점합의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으나 노조쟁의대책위를 5월 4일까지 해산하는 등의 추가조항이 첨가됨에 따라 쟁점을 마무리지음.
 - 노조는 노조간부 30여명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4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월드컵 개최와 상관없이 5월 중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쟁대위의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을 수용키로 해 극한으로 치닫던 철도노사 관계는 정상궤도를 찾아 나

갈 것으로 보임.

- 38일간의 장기간 파업을 벌였던 발전노조의 경우 이미 348명이 해고조치된 가운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일부 지부들의 산별조직 탈퇴 움직임 등까지 겹치면서 혼란을 겪고 있음.
 - 발전 회사측은 업무복귀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파업 불참’을 포함하고 있는 서약서 작성 요구 및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감사 실시 등 파업중단 이후 현장탄압 심화를 이유로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회사가 징계인원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임금교섭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탄압 분쇄와 징계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2차 총파업 투쟁계획”을 시달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 노조는 4월 24일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발전해복투)를 구성하는 등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현장탄압에 대응하고 노조 조직을 강화해 나갈 방침

◆ 현대차 성과배분 노사갈등 심화 예상

-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2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128,880원으로 정액 요구기로 결정
 - 현대차노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회사의 지불능력,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통상급 기준 10.1%, 기본급 기준 12.2%의 평균 인상률 효과가 있는 정액 요구안을 확정함.
 - 노조가 임금 및 성과급 요구안을 정액으로 확정하는 데는 영업직의 경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고정급의 비중이 높지 않아 정률 인상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사내 임금격차 해소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나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자 및 직급자들의 경우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큼.
- 현대자동차의 계속되는 흑자로 연말 성과급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감 상승
 - 2001년 현대자동차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섰고 당기순이익만해도 1조 1억원을 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보았으며 2002년 1/4분기에는 매출 5조 7천억원, 순이익 3,600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배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노조는 2002년 당기순이익을 3(주주) 대 3(조합원) 대 4(재투자비용)의 비율로 조합원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난색을 표하

고 있어 주요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밖에 노조는 1998년 성과급 반납분과 퇴직금 및 누락임금 지급과 1998년 정리해고자들의 근속년수 정상화를 비롯해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인원 채용 등을 요구
- 현대차노조는 투쟁 돌입 시점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6월 월드컵 실시기간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노사·노정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 노조는 18일 임금요구안 등을 회사측에 발송하고 4월말 경 상견례를 갖고 5월부터 교섭을 본격적으로 벌어나갈 계획
 - 민영화 문제나 주 5일제 합의에 따른 법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노조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연대투쟁 및 단체행동 돌입 시점을 조정해 나갈 방침
 - 그러나 5월 2일 임금교섭 노사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등 교섭진행 일정을 고려할 때 노사간 본격적인 협상은 7월이 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